

또 다른 갈등 불씨 될 수 있어...지역사회 해법 찾아야

문화전당, 5월 단체 상대 110억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배경

옛 도청 별관 존치 농성으로 발생 국고 손실 금액 커 부담

문화전당 성공 운영 걸림돌...제주 강정마을 사례 주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사회적 갈등 비용'의 처리를 놓고 답답지 않은 선택의 궁지로 몰리고 있다.

5월 단체 등의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의 책임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광주 지역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5월 단체를 상대로 한 1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현안은 또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하지만, 현실은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장기갈등을 빚은 제2의 제주 강정마을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고 문화전당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래저래 문화전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화전당의 숙away=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문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금기'(禁忌)나 다름없는 사안이다. 문화전당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측에 110억원을 물어준 것

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소송의 당사자가 5월 단체와 관련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도 문화전당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고, 복원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현안이 불거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화전당이 지난 2016년 대림 등 업체측에 110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진행했어야 할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월 관련 단체와 관련자 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기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은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특히, 정부는 5월 단체들의 요구사항인 별관의 존치를 결정했고, 새정부에서는 원형복원까지도 약속한 상황이다.

문화전당측에선 손해배상 청구 현안이 지역사회의 적극 지지가 관건인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내부적으로 5월 단체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하지만, '국고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비판 여론도 정부기관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광주항쟁 유적을 살린 별관존치 투쟁=광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08년 6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별관 건물은 5·18 시민군의 항쟁 유적지이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측(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007년 실시 설계안대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일부 부지를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출입구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2년여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다. 정부는 2008년 12월 공사중단을 선언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이는 공기차질로 이어져 대림산업 등이 공사 지연 배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단초가



5월 단체 등이 지난 2008년 장기농성 투쟁으로 보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5월 단체 등은 현재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됐다.

옛 도청 별관 존치 논란은 지난 2010년 12월에야 일단락됐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꾸려

져 별관 부분 존치안을 도출한 것이다.

도청 별관을 일부 헐어내는 대신 그 자리에 철골 구조물을 세워 원래 있었던 공간을 기념하는 방안이었다. 대신, 어린이

문화원건물은 원래 설계보다 폭이 줄어드는 등 문화전당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불산단 용접 불꽃 살아났지만 작업인력 없어 애로

백척간두에 선 호남경제

③ 회복세 조선업 이번엔 인력난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이 울झे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신규 선박수주가 늘면서다. 물론 저가수주에 따른 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주물량 증가로 대불산단의 용접 불꽃을 살리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업체들은 작업인력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다. 또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은 조선해양 기업이 집적된 전남 서부권 산업의 요충지다. 최근 몇 년간 조선경기 악화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 기업은 물론 지역 상권까지 심각한 불경기를 겪어왔다. 정부는 지난 5월 목표·영안·해남을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 41척 신규 선박 수주 불구 임금상승·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 어려움 가중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 조선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전남지역 조선업체들도 호황기에 버금가는 신규 수주를 따내고 있다. 지난 2016년 14척에 불과하던 신규 물량이 2017년 50척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41척을 수주했다. 특히 선박 수주 가격까지 회복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활황을 예감케 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전남도와 고용노동부 목표지침은 29일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등 조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수주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서남권 양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사내협력사 등에서 2019년 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1500여 명 수준이다. 인근 대불산단에서도 수주 증가와

연안 선박 등으로의 사업 전환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따르면 대불산단의 고용인원은 2011년 1만4172명을 정점으로 이후 꾸준히 하락, 지난해 12월 5594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 6월말 6879명까지 늘었다.

지역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대불산단 인원이 대략 9000명 수준으로 늘어야 한다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현재 전남 서남권에는 해경 서부정비장 북포 유치 추진되고 있고, 대불산단에서는 중소형조선업체들의 신조사업 지원을 위해 공동 진수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남권 조선업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된 수주 절벽으로 작업자들이 경기도 평택 등 타 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거환경 미명하에 달동네는 어떻게 변했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6) 집값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멋진 집이었구나!".....

오래전 생텍쥐페리는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에서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들을 안타까워했지만 어른들은 오늘도 여전히 숫자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어린 왕자' 환권 가슴에 안고 세속적인

셈법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속물스런 어른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던 젊은 날 우리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강 건너 불 구경이겠거니 했는데 최근엔 광주지역도 심상치 않은 곳이 있다는 뉴스다. 서울발 부동산열기가 뉴스가 될수록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더 이상 가족이 함께 살고 영혼을 쉬게 하는 '스위트 홈'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가치가 더 중요한 부동산일 뿐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완도출신 손장섭작가(1941~)의 '달동네에서 아파트로'(2009년 작)는 서울 산비탈에 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콘크리트 터미의 아파트로 재개발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평범하고 작지만 애뜻하고 아련해 보이는 달동네와 크기, 호화로움으로 서열을 매기는 아파트가 한 화면에 배치돼



손장섭 작 '달동네에서 아파트로'

극명하게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손장섭작가 특유의 은회색과 청회색, 갈색톤이 주조인 그림이지만 다른 그림과 달리 극적 배치를 통해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부동산광풍을 연상시킨다. 민중미술의 선구적 활동을 했던 작가는 풍경화를 그리면서도 역사와 삶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 시대 풍경화의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